

여행수요 급증하는데...비행기가 없다

전 세계 코로나 회복 여행 확산

유가 상승·공급망 문제 상황 악화 높아진 항공권 가격 당분간 지속

여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비행기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중국이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규제를 해제하면서 전 세계의 비행기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유나이티드항공과 에어인디아 등 주요 항공사가 수백 대의 항공기를 주문했거나 주문할 예정이지만 공급망의 제약으로 해당 항공기들이 인도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에 따르면 현재 밀려 있는 항공기 주문량은 1만2천720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에어버스의 가장 인기 있는 단일 통로형 모델도 최소 2029년 인도분까지 다 판매된 상황이다.

이는 지난 몇 개월간 너무 많이 올라 사람들이 심하게 불평하는 항공권 가격이 당분간 유지되고,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행 전문 사이트 '라이프프롬어라운드'(LiveFromALounge.com)의 아자이 아우타니는 "중국의 재개방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며 "비행기 부족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과 같은 다른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필수적인 부품 구하기나 노동력 부족과 같은 공급망 문제 역시 회복 여행 심리와 노후 항공기 대체 필요성 등으로 늘어난 항공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 에어버스는 이달 초 공급망 문제를 이유로 700대의 제트여객기 납품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주물이나 단조를 만드는 소규모 항공기 부품 납품업체에 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코로나 여파로 국가들이 국경을 닫으면서 위축된 여행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몰랐던 항공사들이 전 세계 사막에 보관 중인 수천 대의 항공기들도 비행기 부족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다.

그 결과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높아진 항공 운임이다. 해외 출장이 다시 많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수년 만에 해외여행에 나서려고 하면서 항공권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 밖에 항공사들이 항공기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소유기를 연장할 경우 사람들은 더 오래 된 비행기를 타야 할 수도 있다.

한편 보잉과 에어버스로서는 판매한 비행기를 제때 인도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항공 업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분간 해고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조지 퍼거슨은 "주문 잔고가 너무 커서 당장 경기 침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항공기 제조업체와 항공사들이 어떻게든 직원들을 붙잡아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 시카고 미드웨이 공항의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분실된 여행용 가방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겨울 폭풍 기간 여객기 운항을 취소하거나 지연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모스크바 새해맞이 조형물 앞서 '찰칵'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사람들이 새해 맞이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日, 중·홍콩발 여객기 삿포로·후쿠오카행 금지

코로나 전수검사...4개 공항만 이용

일본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홍콩·마카오발 여객기에 대해 전국 4개 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8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전날 일본 외무성은 오는 30일부터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도쿄 나리타, 도쿄 히네다, 오사카 간사이, 나고야 주부 등 4개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는 유명 관광지로 통하는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국제공항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홍콩 대표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과 자회사 홍콩익스프레스, 홍콩에어라인 등 3개 항공사는 30일부터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운항을 정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캐세이퍼시픽 대변인은 일본 당국에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캐세이퍼시픽 홈페이지에는 30일 이후 홋카이도, 삿포로, 오키나와 등 유명 관광지행 항공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떴다.

이미 다음 달 홍콩에서 일본의 여러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은 거의 매진된 상태였다.

명보는 "현재 많은 홍콩인이 홋카이도 등지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홍콩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해외 관광객에 대한 빗장도 풀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달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중국발 입국자와 항공기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일본 외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푸틴 회담, ‘서방 관계개선 모색’ 중국에 영향 없을 것”

“중, 리쪽으로 더 다가가지 않을 듯”

“서방에 대한 불신은 변하지 않을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정된 이번 회담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중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장기화 속에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구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후 러시아와 가까워지긴 했지만,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바꾸려고 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지금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거나 서방 주도의 전면적 경제 제재에 동

참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요구하는 군사 지원이나 제재 완화도 자제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RSIS) 리밍장 부교수는 SCMP에 “많은 도전을 받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외교적 독립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중국은 안보, 이념, 경제, 첨단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미국의 성공적인 연합 전선 구축에 직면해 태도를 누그러뜨려야 하는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나,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이 중국의 입장을 약화시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다만 중국이 대대적으로 입장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내년 미국과 동맹들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균형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방에 대한 불신과 의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SCMP는 “관측자들은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와 대화 노력에 대한 지지와 위기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전문가들도 정치적 레토릭과 별개로, 중국이 러시아 쪽으로 더 다가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을 적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러시아가 중국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세인트루이스대 중국 역사문화학과 자오 마 부교수는 “미국-중국-러시아의 미래 관계에서 우리는 푸틴의 러시아를 소련 제국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억만장자들 838조원 손실...머스크 최악

틱톡 창업자 자이밍 12.7조 늘어

올해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축적된 기술주 폭락으로 모두 6600억달러(약 838조원) 규모의 자산 손실을 봤다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억만장자들의 순자산 1조 9000억달러(약 2411조원)가 사라진 것으로 포브스는 추산했다.

특히 테슬라와 스페이스X, 트위터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1150억달러(약 146조원)나 줄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억만장자 가운데 가장 손실이 컸다.

머스크는 지난 10월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5조8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자금조달을 위해 230억달러(약 29조2000억원) 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내다 팔았으며, 이런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이날 현재 70% 가까이 하락했다.

머스크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부자 대부분이 모두 올해 자산을 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머스크에 이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800억달러(약 101조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어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창업자, 780억달러 손실), 래리 페이지(구글 모회사 알파벳 공동창업자, 400억달러 손실) 등의 손실액이 컸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 창업자 자이밍의 자산은 100억달러(약 12조7000억원) 이상 불어난 550억달러(약 69조8000억원)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

